

研究論文

국어과에서의 독서교육 발달 과정 연구 - 근대계몽기에서 건국기까지 -

허재영*

I. 서론	IV. 건국기의 독서교육
II. 근대계몽기 국어과의 독서 영역	V. 결론
III. 일제강점기의 독서교육	

I. 서론

독서교육의 역사를 살펴보면, 독서이론과 실제 교육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독서의 역사가 아주 오래된 데 반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론화된 역사가 짧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교육의 역사를 살피는 것은, 독서의 역사를 살피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독서의 역사는 글자의 발명과 함께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알베르토 망구엘의 『독서의 역사』는 비록 수필 형식을 취하고 있어 학술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독서의 역사가 진흥조각에서 철퍰로 바뀌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더욱이 책 분류의 역사도 고대 이집트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드러내 준다.

이러한 차원에서 동양에서의 ‘책읽기’와 관련한 역사도 그 뿌리가 오래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의 옛 선비들도 웬만한 학자라면 독서와 관련한 글을 한판씩은 남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의 역사와 독서교육의 역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선임연구원, 국어학 국어교육 전공

사는 달리 이해되어야 한다. 왜냐 하면, 독서 행위는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독서교육의 역사는 공식적인 교육 활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독서교육은 학습자의 독서 능력 신장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전체의 문식성 文識性 을 구성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과학적인 독서교육 연구의 당위성이 존재한다. 이 점에서 독서교육의 역사를 살펴보는 일은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 글은 근대계몽기 이후 우리나라에서 실행된 독서교육의 역사를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근대계몽기(1880~1910)는 근대 식 학제가 처음 도입되고, 교과 개념이 확립되면서, 국어과교육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기이다. 특히 ‘국어’라는 교과명이 쓰이기 전에 ‘독서, 작문, 습자 와 같은 교과목이 존재했음을 고려할 때, ‘독서교과’의 성격과 ‘국어과’의 관계, ‘국어과’에서의 독서교육의 위치, 독서교육과 관련된 이론적 발전 과정에 대한 탐구는 독서교육의 역사)를 탐구하는 데 중시되어야 할 과제로 생각된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 글은 근대계몽기로부터 건국기까지의 국어교과에서 독서교육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기술하고, 각 시기별 독서교육 관련 이론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각 시대별 독서교육의 근거 법령 교과서, 독서교육과 관련된 논문(논설문)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는 독서교육의 근거가 교육과정이나 따로 존재하지 않던 시기에는 각종 법령이나 학교 규칙에 제시되어 있다는 점, 이러한 법령에 명시된 교수 요지나 목표 등이 교과서에 구현되어 있다는 점, 실제 독서교육이 각 시대 상황이나 이론을 반영하게 된다는 점 등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법령, 교과서, 독서교육 논문류 등과 관련된 체계적인 자료 수집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종합적인 DB를 구축함으로써, 2) 각 시대별 독서교육 논의의 흐름을 정리

1) 독서교육 연구를 위해 ‘독서교육사’라는 용어와 ‘독서교육연구사’라는 용어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독서교육사는 실제 독서교육을 실행한 역사인데 비해, 독서교육연구사는 독서교육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역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천경록·이재승은, 미국의 경우 1910년 이전까지는 독서교육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이는 ‘독서의 역사’나 ‘독서교육의 역사’가 오래된 데 비해, ‘독서교육연구사’는 길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 점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독서교육의 역사를 중심 논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며, 그 가운데 ‘독서이론’을 곁들여 설명하고자 한다. 천경록·이재승, 『읽기 교육의 이해』(우리교육 1997).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흐름을 밝히기 위해 이 글에서는 독서교육 발달 과정을 ‘근대계몽기(1880~1910)’, ‘일제강점기(1910~1945)’, ‘건국기(1945~1955)’로 시대를 나누고,³⁾ 각 시대별 독서교육의 법적 근거 및 이론 변화 과정을 살피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결과적으로, 독서교육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1955년 제 1차 교육과정의 제정에서 국어과 교육과정의 영역 구성이 어떤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가를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I. 근대계몽기 국어과의 독서 영역

1. 교과로서의 ‘독서(讀書)’와 영역으로서의 ‘독법(讀法)’

우리나라에서는 근대식 학제가 도입되고, 소학교령과 중학교령이 발표(發布)되면서 각급학교의 교과목으로 ‘독서, 작문, 습자’를 두었다⁴⁾ 이는 근대식 학교교육

2) 이 작업은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의 ‘근현대 민족어문교육 기초연구 프로젝트’의 하나로 이루어졌다. DB의 주제는 근대계몽기, 일제강점기, 건국기, 교육과정기에 따른 교과서, 국어교육 관련 논문, 국어 정책 관련 자료 등이며, 대상 자료는 각 시기별로 발행된 교과서, 신문, 잡지, 관보, 단행본, 저술류 등을 포함한다. 이 점에서 DB 구축의 대상이 매우 방대하고, 미발굴된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일률적인 통계를 제시할 수는 없다. 이 점에서 글쓴이는 근대계몽기로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교과서, 국어 연구 자료, 국문론 논설류, 국어교육 관련 자료를 따로 DB화했다. 이 자료는 좀 더 다듬은 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3) 이와 같은 시대 구분은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의 ‘근현대 민족어문교육 기초연구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논의를 거쳐 얻은 결론을 바탕으로 한 구분이다. 근대라는 용어 사용 및 기점 논의는 역사학과 국어학과 등에서 많은 논란을 거듭했으나, 그 특징상 계몽성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점에서 사용한 용어이며, 일제강점기는 식민지배를 당했던 기간을 말한다. ‘건국기’라는 용어는 다소 생소하지만, 미군정과 정부 수립 및 전시를 거치면서 ‘교육과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의 시기’를 의미한다. 교육과정의 제정(1955)은 교육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므로, 광복으로부터 교육과정 제정 이전까지를 ‘건국을 전후로 한 혼란상이 반영되는 시기’로 보아 붙인 용어이다 따라서 독서교육의 역사를 기술할 때에, 교육과정 실행 이후도 다루어야 하나 이 글에서는 건국기까지를 먼저 다루고, 교육과정 실행 이후는 다른 글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4) 이에 대해서는 허재영, 「근대계몽기 이후 국어교과의 성립 과정 연구」, 『중등교육연구』, 제53집 제1호(경북대학교 중등교육연구소, 2005) 참고할 것

이 실시되면서부터 독서교육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1895년 ‘소학교령’에서의 독서교육은 교과목명으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교과목명으로 ‘독서’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시기의 학교 교육이 독서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교과서인 『국민소학독본』(학부, 1895)이 ‘독본(讀本)’ 중심이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교과는 1906년 보통학교령과 고등학교령이 발표되면서 ‘국어’라는 과목으로 바뀌었으며 그 속에 ‘독법, 철법, 서법’이 들어 있다. 이를 <자료 1>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자료 1> 근대계몽기 교과목 변천

연대	각급학교 교과목		
	소학교(보통학교)	중학교(고등학교)	사범학교
189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95년 소학교 규칙 ▷ 심상과 : 修身, 讀書, 作文, 習字, 算術, 體操 ▷ 고등과 : 修身, 讀書, 作文, 習字, 算術, 本國地理, 本國歷史, 外國地理, 外國歷史, 理科, 圖畫, 體操(裁縫), 外國語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00년 중학교 규칙 ▷ 심상과 : 倫理, 讀書, 作文, 歷史地誌, 算術, 經濟, 博物, 物理, 化學, 圖畫, 外國語, 體操 ▷ 고등과 : 讀書, 算術, 經濟, 博物, 物理, 化學, 法律, 政治, 工業, 農業, 商業, 醫學, 測量, 體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95년 한성사범학교 규칙 ▷ 본과 : 修身, 教育, 國文, 漢文, 歷史, 地理, 數學, 物理, 化學, 博物, 習字, 作文, 體操 ▷ 속성과 : 修身, 教育, 國文, 漢文, 歷史, 地理, 數學, 理科, 習字, 作文, 體操
190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06년 보통학교령 시행 규칙 ▷ 修身, 國語, 漢文, 日語, 算術, 地理, 歷史, 理科, 圖畫, 體操, 手藝, 唱歌, 手工, 農業, 商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06년 고등학교령 시행규칙 ▷ 본과 : 修身, 國語, 漢文, 日語, 歷史, 地理, 數學, 博物, 物理, 化學, 法制, 經濟, 圖畫, 音樂, 體操 ▷ 예과 및 보습과 : 본과에 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06년 사범학교 시행 규칙 ▷ 본과 : 修身, 教育, 國語, 漢文, 日語, 歷史, 地理, 數學, 物理化學, 博物, 圖畫, 體操, 音樂, 農業, 商業, 手工

이와 같이 교과목명이 바뀐 까닭은 교육학의 발전과 더불어 교과의 개념이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1906년에 이르러 ‘국어’라는 교과가 나타난 것은 국문의 중요성 인식과 국어국문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독서, 작문, 습자’라는 교과목이 ‘국어’라는 교과목으로 변화했다고 하여, 실제 교육 목적이 획기적으로 바뀐 것 같지는 않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당시의 교과목에 대한 요지(要旨)이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 2> 독서교육의 요지 변천

	요지 (각급학교 시행규칙 참고)		
	소학교/보통학교	중학교/고등학교	사범학교
독서 (1895-) 교과목명 으로 쓰임	<p>讀書와 作文은 近으로 由하여 遠에 及하며 簡으로 由하여 繁에 就하는 方法에 依하고 문저 普通의 言語와 日常須知의 文字 文句 文法을 讀方과 意義를 知게 하고 適當한 言語와 字句를 用하여 正確히 思想을 表彰하는 能을 養하고 兼하여 知德을 啓發함을 要함으로 함</p> <p>尋常科에는 近易適切한 事物에 就하며 平易하게 談話하고 其 言語를 練習하여 國文의 讀法 讀書 綴字을 知게 하고 次第로 國文의 短文과 近易한 漢文 交하는 文을 授하고 漸進하기를 從하여 讀書 作文의 教授時間을 分別하는 讀書는 國文과 近易한 漢文 交하는 文과 日用書類 等を 授함이 可함</p> <p>讀書와 作文을 授하는 時에는 單語 短句 短文 等を 書取게 하고 或 改作하여 國文使用法과 語句의 用法에 熟하게 함이 可함... 作文 讀書와 其他 教科目에 授한 事項과 兒童의 日常 見聞한 事項과 及 處世에 必要한 事項을 記述호되 行文이 平易하고 旨趣가 明瞭케 함을 要함 ...</p>	<p>第四條 中學校에 學科 及 程度에 其他 規則은 學部大臣이 定함이라</p>	<p>國文：講讀 ...</p> <p>習學：楷行草의 三體 及 其教授法</p> <p>作文：日用書類 記事文 及 論說文</p>
독법 (1906-) 국어과의 영역으로 변화	<p>第九條 普通學校 各教科目 教授의 要旨는 左와 如함이라</p> <p>二 國語：日常 須知(회자)의 文字와 文體를 知게 하며 正確히 思想을 表彰하는 能力을 養하며 兼하여 德性을 涵養하고 普通 智識을 教授함으로 要旨를 함이라 發音을 正케 하고 日常 必須한 文字의 讀法과 書法을 知게 하며 又 正當한 言語를 練習케 함이라...</p>	<p>第五條 高等學校의 各學科目을 教授하는 要旨는 左와 如함이라...</p> <p>二 國語：普通의 言語 文體를 了解하며 正確히 自由 思想을 表彰하는 能力을 得게 함을 要함이라</p>	<p>第六條 師範學校의 各學科目을 教授하는 要旨는 左와 如함이라...</p> <p>三 國語 講讀은 發音 及 句讀하는 것을 注意하여 講讀할 時에 讀者 及 聽者로 하여 文勢와 文義를 解得케 함을 務하고 ...</p>

<자료 2>의 시행규칙을 참고할 때, 1895년대 ‘독서, 작문, 습자’에서 ① 보통의 언어와 일상수지의 문자, 문구, 문법의 독방과 의의를 알게 하는 것 ② 사상을 표

창하는 능력, ③ 지덕을 계발하는 것 등이 ‘독서와 작문’의 요지라면, 1906년 ‘국어’교과의 요지인 ‘사상 표창, 덕성 함양, 지식 교수’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다만 1906년의 ‘국어교과’의 ‘독법’은 ‘강독’, ‘해독’, ‘발표’ 등을 좀더 분석적으로 접근한 느낌을 준다. 다만 ‘국어교과’가 설치된 이후로 ‘고등학교’, ‘사범학교’ 시행규칙이 좀더 자세하게 변화한 점은 흥미로운 일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교육 목적의 변화보다 교수법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듯하다.

<자료 3> 1895년대 소학교용 독본류의 내용과 특징

	목 차	특 징
國民小學讀本	第一課 大朝鮮國, 第二課 廣智識, 第三課 漢陽, 第四課 我家, 第五課 世宗大王紀事, 第六課 商事及交易, 第七課 植物變化, 第八課 書籍, 第九課 以德報怨, 第十課 時計, 第十一課 駱駝, 第十二課 條約國, 第十三課 智識一話, 第十四課 倫敦 一, 第十五課 倫敦 二, 第十六課 風, 第十七課 勤學, 第十八課 蜂房, 第十九課 支那國 一, 第二十課 錢, 第二十一課 紐約, 第二十二課 乙支文德, 第二十三課 鯨獵(鯨), 第二十四課 老農夕話, 第二十五課 時間恪守, 第二十六課 支那國 二, 第二十七課 싸힐드 一, 第二十八課 싸힐드 二, 第二十九課 氣息 一 (이하 41과 까지는 생략)	1. 국한문혼용체의 41개 개별 편제 2. 내용상 개화 지식과 관련된 것이 많음. 3. 긴 문장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어려운 용어가 많음. 4. 고학년용이거나 학년 적용 개념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된 듯 함.
小學讀本	立志 第一, 勤誠 第二, 務實 第三, 修德 第四, 應世 第五	수신 교과서의 성격이 강하며, 긴문장이 많이 쓰임
新訂尋常小學	(음절표 제시) 尋常小學序, 第一課 學校, 第二課 勉勵, 第三課 蟻, 第四課 東西南北이라, 第五課 四大門과 四小門이라, 第六課 時, 第七課 馬와牛이라, 第八課 農工商, 第九課 驍, 第十課 虹, 第十一課 苦는藥의種이라, 第十二課 雀, 第十三課 입은훈아이라, 第十四課 金志學, 第十五課 부영이가 비둘기의게우슴을보았더라, 第十六課 食物, 第十七課 食物 (이하 31과 까지는 생략)	1. 초학자를 위한 편제를 하였으나, 음절표를 제외하면 한글 낱자 학습 방법이 없음. 2. 내용면에서는 수신 일상 지식과 관련된 것이 많음. 3. ‘서(序)’에서 국문 송상의 취지 및 교과서 편집 방향을 밝힘.

이는 1895년대의 독본류에 비해 1906년대의 독본류가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⁵⁾ 먼저 1895년대의 소학교용 독본류를 살펴보

면 <자료 3>과 같다.

<자료 3>의 교과서류는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상에 필요한 지식, 수신과 관련된 내용 등을 중심으로 편제하였다. 이 가운데 초학자를 대상으로 한 교재는 『신정 심상소학』으로 보이는데, 이 교재는 음절표를 먼저 제시하고, 서문을 실은 뒤, 목차를 제시하였다. 또한 내용상으로도 『국민소학독본』이나 『소학독본』보다는 평이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편제라 할지라도 초학자가 한글 낱자를 익히고, 낱말을 익힐 수 있도록 단계별, 수준별 편제를 하지는 못했다. 이는 당시의 독서교육 방법이 세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초학자용 독서 교재가 시급히 필요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이 책의 서문은 참고할 만하다.

<자료 4> 『신정 심상소학』 서문

學하는 者ㅣ 전혀 漢文만 崇尚하야 古를 學할 뿐 아니라 時勢를 헤아려 國文을 參互하야 또한 今도 學하야 智識을 넓힐 것시니 我國의…(중략)… 教育의 一事가 目下의 急務ㅣ라 茲에 日本人 補佐員 高見龜와 麻川松次朗으로 더부러 小學의 教科書를 編輯하되 天下萬國의 文法과 時務의 適用할 者를 依樣하야 或 物象으로 譬喩하며 或 畫圖로 形容하야 國文을 尙用함은 여러 兒孩들을 위선 씨앗기 쉽고 漸次 漢文으로 進階하야 教育할 거시니 攄우리 羣蒙은 國家의 實心으로 教育하심을 몸바다 惻動하야 材器를 速成하고 各國의 形勢를 勉勵하야 並驅白主하야 我國의 基礎를 泰山과 磐石갓치 措置하기를 日望하노이다 建陽 元年 二月 上漸(띄어쓰기는 필자)

<자료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교과서는 국문을 중시하는 취지를 밝혀 ‘천하만국의 문법’과 ‘시무에 적용할 것’을 주된 내용으로 삼았다. 그 과정에서 일본인 보좌원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 시기 교과서 개발에서 일본식 교육이 수입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비유’, ‘도화를 사용한 형용’ 과정은 초학자들의 독서능력을 고려한 편제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과별로 그림을 함께 제시한 경우가 많았으며, 문장의 길이도 초학자에 적합한 것이 많다. 그림에

5) 근대계몽기의 교과서 연구에 대해서는 강운호, 『개화기의 교과용 도서』(교육출판사, 1973); 박봉배, 『국어교육전사(상)』(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7); 이종국 『한국의 교과서 근대교과용도서의 성립과 발전』(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1)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여기서 비교 대상으로 삼은 것은 학부 편찬의 소학교(보통학교)용 교재이다.

도 불구하고, 이 교과서 역시 한글 낱자 익히기를 비롯하여, 단계적인 어휘 학습 문장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점에서 1906년의 교과서류는 많은 수가 개발되지는 못했지만, 단계별 편제를 고려했다는 점에서 발전된 모습을 보인다.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교과서가 대한국민교육회에서 편찬한 『초등소학』이다. 이 교과서의 내용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⁶⁾

<자료 5> 『초등소학』의 내용 및 특징

	목 차	특 징
초등 소학	▷ 卷一: 낱자 및 낱말, 문장 익히기로 편제(한자 한글 그림 병용) ▷ 卷二: 第一 아참이, 第二 아참二, 第三 기럭이, 第四 테조, 第五 원승이, 第六 개암이, 第七 혜난 것, 第八 정희와난희, 第九 파리와나무, 第十 尺, 第十一 토끼와거북, 第十二 人의 身體, 第十三 四方, 第十四 그림이약이一, 第十五 그림이약이二, 第十六 그림이약이三, 第十七 병아리, 第十八 산양군, 第十九 운동, 第二十 시계, 第二十一 정길과순길 ▷ 卷三: 第一 四時, 第二 교만흔수담, 第三 줄다리기, 第四 오리색기, 第五 제비집, 第六 나물캐는 것, 第七 솟굽질, 第八 日, 第九 月, 第十 서로도움, 第十一 梅花, 第十二 신실흔아달, 第十三 조련, 第十四 父親의상급, 第十五 學校, 第十六 미련흔아희, 第十七 口는一, 第十八 호랑이와거울, 第十九 매암이, 第二十 實果, 第二十一 春의景色, 第二十二 연못에 배, 第二十三 蚕(전), 第二十四 우리홀일, 第二十五 부흥이와 비닭이, 第二十六 곡식, 第二十七 도적직히는개, 第二十八 어린고양이, 第二十九 鷹, 第三十 밋글읽기 ▷ 卷四: 第一 萬壽聖節, 第二 賣買흔모양, 第三 거짓말의해, 第四 幼兒의지혜, 第五 문래와씨아, 第六 편지, 第七 朋友, 第八 職業, 第九 清潔, 第十 職業, 第十一 성년소, 第十二 七曜日, 第十三 자식의道理, 第十四 인약을직힘, 第十五 雪戰, 第十六 趙憲一, 第十七 趙憲二, 第十八 磁針, 第十九 米, 第二十 兒孩와새색기, 第二十一 지금그때, 第二十二 古代의軍人, 第二十三 今世의軍人, 第二十四 나귀와여호, 第二十五 漢陽, 第二十六 鷄, 第二十七 소경, 第二十八 織物, 第二十九 和睦흔家眷(이하 권5~권8은 생략)	1. 권일에서는 낱자 낱말, 문장 익히기의 순서로 편제함. 2. 권이부터는 5과에 한편씩 ‘복습’편을 두었음. 복습 내용은 본문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익히도록 문장으로 편제함. 3. 권삼의 29과는 밋글 읽기로 시험과 관련된 과임 4. 권아 권삼은 사물 일상생활, 수신과 관련된 것이 많음 5. 권5~권8까지의 내용 가운데 『국민소학독본』, 『소학독본』, 『신정 심상소학』에 실린 내용의 일부가 옮겨져 온 점을 고려할 때, 앞선 시기의 교과서가 이 시기의 교과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6) 이 교과서는 한국학문헌연구소, 『한국개화기교과서총서』(1977, 아세아문화사)의 ‘개화기교과서총서’에는 1, 2, 4, 5, 6, 7, 8권이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한국국어교육연구원 『침략기의 교과서』(2003, 박봉배 교수 소장)에서 3, 4권을 발굴하여 영인한 바 있다.

<자료 5>의 교재에 나타난 특징은 ① 한글 낱자 어휘 학습 문장 학습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제되었다는 점, ② 내용상 일상 생활 지식, 수신, 역사 등과 관련된 것이 많아진 점, ③ 권수가 높아질수록 내용이 심화된다는 점 ④ 5과에 한 편씩 복습을 두었다는 점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재 편제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독서, 작문, 습자’와 같이 국어교과가 분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국어교과’의 성립과 함께 ‘독법’, ‘철법’, ‘서법’의 분화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독서교육이 단순 지식 습득과 암송의 차원을 넘어, 생활 경험을 반영한다는 생각은 독서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흐름을 자연스럽게 반영하는 셈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이 시기의 독서교육에 대한 견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2. 독서교육의 이론과 방법

근대계몽기 독서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는 논의는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 그 까닭은 교과로서 ‘독서, 작문, 습자’가 설치되었더라도, 독서는 단지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학문하는 과정)으로만 인식되었을 뿐, 과학적인 독서교육을 모색하는 단계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기 신문, 학회보류의 논설은 ‘학문의 중요성’과 ‘지식 습득의 중요성’을 강조한 글들이 많고, 이를 위해 ‘국문의 가치를 재인식해야 함’을 강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논의는 1886년 《한성주보》에 실린 「논학정(論學政)」(1886.1.25~2.1~2.4.), 「논신문지지의익(論新聞紙之益)」(1886.9.27.), 「광학교(廣學校)」(1886.10.11.)를 비롯하여, 1900년대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이 시기 《독립신문》에 게재된 교육관련 논설은 76편이 있으며, 그 가운데 ‘교육의 필요성’과 ‘학문의 중요성’을 논의한 글이 36편이 들어 있다. 또한 《협성회회보》, 《미일신문》, 《대국신문》 등의 논설류에도, 이와 같은 논조가 대부분이다.

7) 천경록·이재승은 읽기교육 연구 경향에서 미국의 경우 1780~1910년대까지는 ‘경험으로서의 읽기’시대로 규정한 바 있다. 경험으로서의 읽기는 읽기모형이나 방법에 대한 제시보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읽기’의 성격을 띤다. 이 점에서 근대계몽기의 독서교육에 대한 견해도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식 습득, 덕성 함양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천경록·이재승 앞의 책.

이러한 논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① 개화를 위하여 학문과 지식이 필요하며, ②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학교를 세워야 하고, ③ 아동과 여자들의 교육에 힘써야 하며, ④ 그 과정에서 독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문을 사용해야 하며 ⑤ 학문과 지식의 매체로 신문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근대개몽기의 ‘국문 중사는 독서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방책으로 추진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다

이와 같이 1880년대부터 190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는 ‘학문과 지식 습득’을 위한 독서 능력을 논의하면서도, 독서교육과 관련된 깊이 있는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까닭은 신학문의 도입과 신학제의 실시가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기에는 시기상조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서교육’과 관련된 진전된 논의는 1906년 ‘보통학교령’과 ‘고등학교령’이 반포된 이후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논의는 신학문으로서의 교육학 도입, 언어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 등이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과 관련된 논의는 유근, 「교육학원리」, 『대한자강회월보』 제6호(1906), 장응진, 「교수와 교과에 대하여」, 『태극학보』 제14집(1907.11.)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서구의 교육 이론이 도입되면서 과학적인 교수법과 교과 개념이 정착되어 갔다. 이러한 흐름은 ‘교육 방법’과 관련된 논의를 낳았는데, 정영택의 「교육의 한계」, 《기호학회월보》 제7호(1909)9)는 이를 증명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료 6> 鄭永澤, 「教育의 限界」, 《기호학회월보》 제7호(1909.2.25)

第五章 教育術 及 教育論

教育은 一邊으로 見으면 卽 技術이라 外他 各般 技術과 갓치 전혀 實行上 事業에 屬하나 然이나 教育은 精神上으로 造人하는 技術이라 教育者가 其 精神

-
- 8) 이광호는 ‘개화기의 어문정책’의 기초가 “개화사상 → 일반 대중을 위한 신교육의 필요성 → 국어, 국문의 개선 및 정리의 필요성 → 국문 중심의 어문정책 수립 : 법률 칙령에 대한 규장’으로 나타났다고 정리한 바 있다. 특히 ‘국문위본(國文爲本)’을 천명한 칙령 제1호는 일반 대중의 문식력 향상을 염두에 둔 국문보급정책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광호, 「개화기의 어문정책」, 『동양학』, 제32집(2002), 232~249 쪽
- 9) 이 논설은 교육학 일반론에 해당하는 논설이다. ‘교육의 의의’, ‘교육의 기능’, ‘교육의 필요’, ‘교육의 한계’로 이루어져 있다.

感化로써 未熟한 幼童을 獨立 自由의 人物로 陶冶하라하는 것인 故로 他 技行과 갖치 其 目的物을 機械로 作함과는 大異하고 其 目的物은 性情이 가장 豊富하고 四圍와 恆常(공상) 交涉해야 活動變化하는 人이라 故로 此를 管理하는 教育者는 各種 障碍와 力爭하고 複雜한 性情을 查察할지라 故로 **教育者는 熟練이 必要**할 뿐 아니라 德義은 溫情과 明智를 具備한 바 **精神上 技術者**가 極宜하니라…(중략)…大抵 教育事業은 理論보다 先行됨이 他 事業과 一般이라 理論을 待야 비로소 成立한 것이 아닌 故로 經驗이 必要한 然이나 又 技術의 進歩는 理論을 不可不依할지라 然則 何等 技藝라도 所得經驗으로 規律을 定立해야 實際行動에 標準을 作하니 況 教育갓치 至難한 技術에야 理論基礎가 尤益 必要한지라 大凡 吾人의 經驗은 狹隘有限해야 世上 萬般 境遇를 悉知 못하니 故로 萬一人이 一個 經驗으로 滿足타 稱하면 古今 東西에 苦心經驗해야 收得한 貴重教訓을 空然히 廢棄함시오 且 自己 經驗만 依賴하면 其 偏頗固陋를 難免할지니 設令 此等 失錯이 無할지라도 自己의 經驗 以外 境遇에는 疑感 彷徨할 것이오 但 非凡한 天才로 智識과 規律을 達해야 機變을 應해야 制宜하는 人이라야 能할지니 **故로 通常境遇에는 教育術에 對한 科學理論을 修得**해야 其 基礎를 堅實케 할지니라…

<자료 6>은 교육이 단순 경험뿐만 아니라, 경험이 축적되어 이론화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으며, 아울러 ‘과학적인 이론을 익혀 ‘교육 기술’로 삼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기술은 교육 방법과 통하며, 이 교육 방법이 언어 교과에 적용될 경우 ‘독서교수법’이나 ‘작문교수법’이 된다. 이러한 가능성은 이 시기 언어에 대한 과학적 인식이 가능해졌다는 점과, ‘언어교과’ 또는 ‘국어교과’가 공식적인 교과로 등장하였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언어에 대한 과학적 인식¹⁰⁾은 장응진의 「심리학상으로 본 언어」, 『태극학보』 제9호(1907.4.)에서와 같이 언어의 특징, 언어의 기원, 언어의 성격에 대한 논의로도 발전되었다. 그 가운데 언어의 의미 및 기능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자.

10) 언어에 대한 과학적 인식은 유길준(1898년 이후로 추정)의 『조선문전』이나 주시경(1906)의 『대한국어문법』과 같은 체계적인 연구와도 관련을 맺는다. 그러나 장응진(1907.4)은 ‘언어의 기원, 기원, 구조, 사용’ 문제를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국어교육의 발전 과정으로 볼 때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 7> 장응진, 「心理學上으로 觀察한 言語」, 『태극학보』, 제9호(1907.4).
 通常 吾人의 言語라 하면 言語의 意義는 說明을 不待하고 明瞭한 者요 言語의
 效能으로 論하면 此로 由야 人我의 意思를 互相交通하며 廣義의 言語 卽 文
 字의 作用으로써 古今 全般 人類社會의 思想을 參酌야 智識을 發達하며 社
 會精神을 發展向上하는 거시 吾人人類가 他動物 社會中에 超越하는 特點이라
 然이느 余가 此에 研究코져 하는 거슨 此에 不止하고 一步를 更進야 言語의
 特點과 及 起源이며 言語가 當初 如何한 階梯를 經야 今日과 如何한 完全한
 境에 達한 거슬 心理學上으로 觀察코져 하노라.

第一 言語의 意味及效能

吾人의 如何한 一新 事物을 他人에게 傳達코져 할 時에는 未져 其人의 以前
 經驗으로 熟知하는 事物中에서 種種한 要素를 引用야 組織함과 갓치 吾人
 의 如何한 一新物名을 他人에 通知코져 할 時에 萬一 其人에게 直接으로 其名
 을 發音야 聞知케 못할 境遇(其人의 聾者든지 或 遠距離에 在할 時)에는 吾
 人은 其人의 曾前에 知覺야 十分 熟知하는 文字等의 助力을 借야 此를 結
 合야 其新發音을 生케 하는 外에 方法이 更無하니 卽吾人의 思想交換은
 知覺上에 呈한 事物을 一定한 已知要素로 分解야 此로써 種種이 結合한 者
 를 謂함이오 此와 갓치 言語의 使用은 事物을 共通한 要素로 分解야 此共通
 要素로써 自由構造를 作하는 者이니...(이하 생략)

<자료 7>의 논의에서 국어교육상 의미를 지니는 내용은 ① 언어가 의사 교환의 기능을 수행하며, ② 일상의 언어(구어)와 광의의 언어(문자)가 존재하며, ③ 언어의 조직(구조)가 있음을 인식한 데 있다. 이와 같이 언어에 대한 과학적 접근은, 독서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언어 인식의 변화와 독서 인식의 변화가 상호 인과관계를 맺는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왜냐 하면, 이 시기 언어학, 교육학, 교과론, 독서론 등은 서구 이론과 밀접한 관련을 맺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상호 인과관계를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독서에 대한 과학적인 논의가 이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이를 반영하는 것이 이춘세의 「독서법」, 《기호홍학회 월보》 제11~12호(1909.6~7.)이다.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 8> 李春世, 「讀書法」, 《기호학회월보》 제1~12 호(1909.6~7) 11).

讀書의 利益

人이 萬物에 最貴함이 되고 三才에 最靈함이 됨은 教育의 其 要領이니 賢愚의 分은 敏用의 別은 皆 教育의 如何함을 視할지로다 皆 教育은 吾人 天賦의 智能을 發達케 하나니 人이 智識이 苟無하면 不獨社會上 幸福의 地位를 得占치 못할 뿐 不是라 且 一日이라도 世에 處키도 不可하니 法國學者 陸修富克 氏가 言호되 心의 智識이 身의 康強과 同一하니 智識의 必要함은 多言을 不待할지라 故로 **書籍者는 吾人 最良의 師友가 되야 吾人의 智識을 授호는 者라** 호얏고 伊國 詩人 佩特拉克 氏가 書籍의 功能을 說호야 曰 余는 最良호 師友가 有호노니 此 師友 中에는 古人도 有호고 今人도 有호며 本國人도 有호고 異國人도 有호야 各各 赫赫호 偉業을 樹호야 卓然히 有名호 者라 余가 彼輩로 交함을 得호미 此에서 …

讀書의 快樂

書籍者는 吾人을 指導訓誨호야 吾人의 圓滿호 幸福의 生涯를 永保케 호는 者니 讀者 少許煩苦로 多大의 快樂을 卽得호는 바이로다 吾 世間萬物의 其時其地를 觀호건디 盛衰가 容有호것마는 獨 書籍은 宏大호 效益이 有호므로써 自古로 少衰치 안이호는도다 …

讀書의 定則

吉明氏(영국학자임) 又曰 吾人의 讀法은 一定의 方法을 當用호 것이오 又는 吾人이 勉學호야 可達호 目的點을 先正호지니 盖 讀書는 吾人 巧力의 不足호 바를 補充호이나 然이나 讀書의 用이 **讀함에 不在호고 思함에 在호니** 其思를 善코져 호면 不得定法을 遵據호야 其心을 一點에 聚호여야 光明호 境에 易至어늘 今日 學生의 讀書호는 狀態를 顧觀호건디 新奇를 徒境호며 多讀을 且貪호야 規律 次序는 全然히 不顧호는니 其 善讀치 못함을 因호야 書의 一得함도 無호디 遂至호야 其心은 反紛호고 其身은 益瘁호니 엇지 可感호 者 安이리오 …英國 哲學家 陸克 氏가 諸大家의 說을 詳採호야 讀書者의 詳細호 法則을 定호야스니 今에 其 最著호 者 諸條를 左에 据호건디

- 一. 有益호 書籍을 精選호야 專攻함을 務호 事
- 二. 著者의 文詞에 拘拘치 말고 其 意義를 瞭解키를 力求호 事

11) 이 논설은 미완으로 되어 있어, 다음 호에 이어짐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호학회월보》는 1909년 7월호로 중단되었기 때문에 이 글의 뒷부분이 더 발표되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 三. 其識論의 有無 紕繆(비무)을 玩味할 事
 - 四. 其 讀書能力(卽 理解力, 思巧力, 註意力, 記憶力)을 培養할 事
 - 五. 疑惑處가 有하거든 識者에게 立質할 事
 - 六. 序, 跋, 凡例는 其書의 內容을 發明한 者이니 當先細讀할 事
 - 七. 題目과 論說 中 適要의 思想과 關係의 思想과 關係의 輕重을 區別하야 何如하든 依据가 有함을 推究할 事
 - 八. 諸科의 書籍을 并讀할진디 其 連絡한 意義가 有한 者에 當就하야 先後의 次序를 以爲할 事
 - 九. 力의 能讀할 者라도 多讀함을 當勉할 事
 - 十. 心氣가 平和하고 精神이 健爽할 時에 當讀할 事
- 右는 一般으로 常히 留意할 事項을 略示함이오 其 詳別은 次章 下에 發明하노니 盖 讀書의 法則은 讀者 效力의 一定 方法을 指示함에 不外하니라...

<자료 8>의 주요 내용은 ‘독서의 이익’과 ‘쾌락’(독서의 효능과 서적의 가치), ‘독서의 정칙’(독서 방법 및 주의 사항), ‘독서법의 연혁’이다. 그 가운데 서적의 가치에 대한 재인식이나 독서의 효능에 대한 인식은 기존의 ‘단순한 글읽기, 또는 지식 습득과 학문을 위한 글읽기’를 벗어나 좀더 과학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곧 ‘讀함에 不在하고 思함에 在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더욱이 독서의 방법을 제시한 ‘정칙(定則)’에서는 열 가지 독서 원리를 제시함으로써, 독서교육의 초기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비록 독일이나 영국 학자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요약 소개한 것이지만, 이 시대에 이르러 독서교육에도 질적인 변화¹²⁾가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식과 교과학의 발달은 국어교과의 목표와 교수법과 관련된 논의를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그 성과물로 볼 수 있는 것이 학부의 『보통교육학』(1910.4.)이었다. 이 책은 보통학교 교육을 위한 교과서로 개발되었는데 그 가운데

12) 이와 같은 질적 변화는 통감시대의 학정잠식이라는 차원에서 자주적 발전 과정을 걸어갈 수 없었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는 이 시기 각 학문 분야의 연구가 공동으로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다. 교육문제에서 통감부의 학정 잠식 문제는 교과서 검정 및 검열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점에서 이 시기의 교과학의 발달도 형식적인 차원에서는 진일보한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식민 지배세력의 간섭이 극심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이는 발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데 국어교과의 ‘독서’와 관련을 맺는 ‘독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다.

<자료 9> 학부 편찬(1910.4.), 『보통교육학』의 독서 영역

영역	내용	비고
<p>讀法</p>	<p>茲에 所謂 讀法教授는 國語讀本을 爲하야 日常必須의 文字 文章을 知케 하고 又 其 文章의 記호 事項을 理解케 하야 智德을 啓發키 爲함이라 漢文讀本을 教授하는 方法에 至하야는 後에 說明하노라</p> <p>讀本은 徒히 文字 文章을 誦讀케 할 뿐 아니라 其 內容의 意義도 十分 理解케 할지며 其 意義가 分明치 못하면 文字 文章도 또 誦 決코 理解치 못할 者이라 我國의 學徒는 讀本을 誦讀함에 文字의 形象과 其 發音에만 注意하고 頭를 搖하면서 一種의 調節을 附하야 高聲으로 朗讀하고 其 意義의 如何에는 注意치 아니하는 弊風이 有하니 此는 從來의 教授法이 適當치 못하 結果라 特히 諸學校에 盛行하는 齊讀은 其 弊風을 馴致할 뿐만 아니라 他 學級의 教授를 妨害하는 事이 甚하니 …(중략)…</p> <p>讀本은 又 此를 理解하며 誦讀케 할 뿐 아니라 其 理解한 事項을 口語로 明瞭히 說明케 할지라 其法은 所教한 事項을 遺漏가 無히 詳細 談話케 하는 事도 有하고 或은 其 大要를 一括하야 簡單히 談話케 하는 事도 有하고 又는 間或 讀本을 見하면서든지 又는 讀本을 閉하고든지 其 便宜를 從하야 談話케 하며 又 問答體로 記述한 教材와 如한 것은 學徒를 其 主客으로 假定하야 互相問答케 하는 等은 興味가 다하고 有效한 一 方法이나라</p> <p>讀法教授에는 書取를 廢치 못하오니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문독본과 한문독본의 구분. 2. 송독과 이해를 목적으로 함. 3. 제독 함께읽기의 폐단) 4. 송독 이해 설명
	<p>讀法教授의 教順은 如左하니라</p> <p>(一) 豫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目的을 指示한 後에 新教材를 理解케 함에 必要한 既得의 文字 語句及事項을 問答하야 此를 練習함. 2. 萬若 教材가 前者의 繼續한 者이거든 前에 教授한 本을 復習하야 豫備로 함. <p>(二) 敎示</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教授한 事項이 學徒가 既知하는 者이거든 直時 讀法을 行할지며 不然하거든 實物繪畫 等을 用하야 難字 難句를 漆板上에 摘書하면서 其 事項의 大要를 豫說하고 然後에 文章의 讀法을 敎授할지니라. 2. 初步의 學徒에게는 敎師가 먼저 範讀을 敎授하고 後에 學徒로 하야금 讀케 할지나 漸次로 進하야는 學徒로 하야금 默讀豫習케 하고 其後에 二三 學徒를 指名하야 讀케 함이 可하니라 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비학습(목적 제시, 기득문자어구 사항 문답) 2. 교시(실제수업) 3. 응용

<p>境遇에는 教師의 範讀은 過半의 學徒가 大略 讀음을 得을 時에 行함을 適當타 ㅎ나니라.</p> <p>3. 二三學徒에게 讀케 ㅎ 後에 書中の 難語難句를 指摘ㅎ야 其意義를 教ㅎ고 更히 一二次를 讀케 ㅎ 後에 全文의 意義를 詳細히 說話케 ㅎ고 更히 此를 再讀케 ㅎ는 等과 如히 讀法과 意義의 說話를 互相交錯ㅎ야 行케 ㅎ지니라</p> <p>4. 此時에 既知ㅎ 事項及 字句 文則과 新히 教ㅎ 者로 比較케 ㅎ이 可ㅎ니라.</p> <p>5. 讀本을 不見ㅎ고 今에 學ㅎ 바 大意를 略說케 ㅎ지니라</p> <p>6. 重要ㅎ 文字語句의 書取를 行케 ㅎ지니라</p> <p>(三) 應用</p> <p>1. 新히 教授ㅎ 字句를 應用ㅎ야 短句短文을 作케 ㅎ며 又는 教師가 作ㅎ야 此를 讀케 ㅎ거나 或은 書取케 ㅎ지니라</p> <p>2. 文章의 文脈을 明白히 ㅎ고 其中的 語句를 變換ㅎ며 又는 轉置ㅎ야 各種의 章句로 作換케 ㅎ는 事이 有ㅎ지니라.</p> <p>3. 內容의 事項에 關ㅎ 應用은 修身, 地理, 歷史, 理科 等の 教授에 依準ㅎ지니라.</p>	
--	--

<자료 9>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① 독서의 방법으로 ‘송독(암송하며 읽기)’과 ‘제독(함께읽기)’가 있으며 ‘제독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있음을 인식한 점 ② 학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독서법과 이해를 가능하게 해야 함을 인식한 점, ③ 독서 교수의 순서를 제시한 점 등이다. 더욱이 ‘독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독서교육이 ‘독해’(읽고 이해하는 능력)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인식한 점도, ‘독서는 지식을 얻기 위해 글을 읽는 것’이라는 막연한 정의를 벗어나게 해 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근대계몽기의 독서교육의 법적 근거와 교과서, 독서교육 이론을 살펴볼 때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교육과정 이념에 해당하는 ‘교과(또는 영역) 요지’가 교과서에 철저히 구현되지 못하였고, 교육 이념을 뒷받침하는 철학적 근거나 이론적 배경이 활성화되지 못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법적 근거가 교과서 개발¹³⁾로 이어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독서교육 이론도 양적인 면이나 질적인 면에서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렀다고 할 수 있다.

13) 오늘날의 교과 교육은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서 개발이 이루어지며, 교육 이론은 교육과정 개발의 근거가 된다. 이 점에서 교육과정과 이론, 교과서의 상호작용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근대계몽기에는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교육령이나 학교 규칙, 교과서 교육 이론의 상호작용성이 그다지 크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계는 다양한 관점에서 그 요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근대식 학제 도입이 능동적이지 못한 면도 있었으며, 당시의 국어교육이 안고 있던 근본적인 문제인 문자 해득력, 문자의 통일 문제 등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독서교육 내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이론의 발달이 이루어질 만큼, 학문 연구의 분위기가 성숙되지 못했다는 점-이는 유근, 장응진, 이춘세 등이 외국 이론을 소개하는 데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통해서도 확인됨-, 그 결과 ‘교과(또는 영역) 요지’와 교과서, 이론의 상호작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¹⁴⁾

III. 일제강점기의 독서교육

1. 조선어교과의 요지

일제강점기의 교육은 1911년 발표된 ‘조선교육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이 교육령은 4차례의 큰 개정과 6차례의 작은 개정이 있었는데 그 경향은 ‘일본어 보급’과 ‘조선어 위축’으로 정리할 수 있다.¹⁵⁾ 그렇기 때문에 ‘조선어교과’는 ‘일본어교과(당시의 국어)’의 부수적인 차원에서 목표가 설정되었고, 교수 내용이나 교수 방법에 대한 발전적인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더욱이 1911년의 교육령은 조선인과 일본인을 구분하여 학제를 운영하였으며, 1922년 교육령은 ‘국어(일본어) 상용자’를 기준으로 학제를 운영하였다.

이러한 학제는 1938년 교육령에서는 일어상용을 기준으로 한 단선 학제로 개편되었고, 1940년 이후로는 학교교육에서 조선어과가 제외되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일본어과와 조선어과의 교수 요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4) 이 점에서 ‘요지’와 ‘교과서 개발’에 참여한 사람들의 관련성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906년 이후의 교과서 개발은 통감부의 영향력이 매우 컸으며 일부 교과서는 일본에서 출판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론적 차원에서 독서교육을 접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요지’와 ‘교과서 개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는 제약이 따랐을 것으로 보인다.

15) 이에 대해서는 김규창, 『조선어과 시말과 일어교육의 역사적 배경』(김규창교수논문간행위원회 1985); 박봉배, 앞의 책(1987); 허재영, 「일제강점기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일본어 보급 정책연구」, 『한말연구』, 제14집(2004)를 참고할 수 있다.

<자료 10> 일제강점기 일본어과와 조선어과의 교수 요지

ㄱ. 보통학교(소학교, 국민학교)에서의 일본어, 조선어 교수 요지의 변화

시대	일본어(국어)	조선어
<p>1911 (교육령 보통학교)</p>	<p>1) 國語는 國民精神이 宿^하바니 또 知識技能을 得^케 ㅎ에 缺^치 못^을 것인즉 何教科目에 對^하야도 國語의 使用을 正確히 ㅎ고 其應用을 自在케 ㅎ을 期^함이 可^함 (보통학교규칙 제7조 3항)</p> <p>2) 國語는 普通의 言語, 文章을 教^하야 正確히 他人의 言語를 了解^{ㅎ고} 自由히 思想을 發表^{ㅎ는} 能을 得^케 ㅎ며 生活上에 必須^한 知識을 授^{ㅎ고} 兼^하야 德性의 涵養에 資^함을 要^함로 ㅎ</p> <p>國語는 假名부터 始^하야 普通의 口語를 授^{ㅎ고} 차차 進^하야는 平易^한 文語에 及^{ㅎ며} 其材料는 修身, 歷史, 地理, 理科, 實業과 其他 生活上에 必須^한 事項을 採^{ㅎ고} 女兒를 爲^하야는 特히 貞淑^한 德을 養^함을 務^함이 可^함</p> <p>國語를 授^ㅎ에는 讀法, 解釋, 會話, 暗誦, 書取, 作文及習字를 併^하야 課^함이 可^함 但 作文, 習字는 特히 教授 時間을 區別^하야 課^함을 得^함</p> <p>讀法은 發音에 注意^하야 抑揚 緩急이 其宜^를 得^함을 要^함</p> <p>解釋은 平易^한 口語를 用^하야 語義 文意를 明瞭케 ㅎ이 可^함… (보통학교규칙 제9조)</p>	<p>朝鮮語及漢文은 普通의 言語, 文章을 理會^하야 日常의 應對^를 ㅎ며 用務를 辨^하는 能을 得^케 ㅎ고 兼^하야 德性의 涵養에 資^함이 要^함로 ㅎ</p> <p>朝鮮語及漢文은 諺文부터 始^하야 漢字가 交^하 文章及平易^한 漢文을 授^{ㅎ고} 其材料는 國語에 準^하야 選擇^하며 特히 漢文은 德性의 涵養에 資^함는 것을 取^함이 可^함</p> <p>朝鮮語及漢文을 授^ㅎ에는 讀法, 解釋, 暗誦, 書取, 作文을 併^하 課^함이 可^함</p> <p>朝鮮語及漢文을 授^ㅎ에는 常히 國語와 聯絡을 保^하야 時時로는 國語로 解釋^케 ㅎ이 有^함(보통학교규칙 제10조)</p>
<p>1922 (신교육령 보통학교)</p>	<p>1) 國民된 性格을 涵養^하며 國語에 熟達케 ㅎ은 一^어 學科^어서던지 恒常 此에 深히 留意^함을 要^함(보통학교규칙 제 11 조 1 항)</p> <p>2) 國語는 普通言語, 日常須知의 文字 及 文章을 知^케 ㅎ야 正確히 思想을 表彰^하는 能力을 養^하며 兼^하야 智德을 啓發^함으로써 要^함로 ㅎ</p> <p>國語는 初에는 主^하야 近易^한 話法을 教授^하며 發音을 正確히 ㅎ며 假名^의 讀法 書法 綴法을 知^케 ㅎ며 漸進^하야는 日常須知의 文字 及 普通文에 及^{ㅎ고} 또 言語를 練習^케 ㅎ이 可^함</p> <p>讀法, 話法, 綴法, 書法은 各各 其主^는는 바에 依^하야 教授時間을 區別^함을 得^하나 特히</p>	<p>朝鮮語는 普通言語, 日常須知의 文字 及 文章을 知^케 ㅎ야 正確히 思想을 表彰^하는 能力을 得^케 ㅎ며 兼^하야 智德을 啓發^함으로써 要^함로 ㅎ</p> <p>朝鮮語는 初에는 發音을 正確히 ㅎ며 諺文의 讀法, 書法, 綴法을 知^케 ㅎ며 漸進^하야는 日常須知의 文字 及 普通文에 及^{ㅎ고} 또 言語를 練習^케 ㅎ이 可^함</p> <p>朝鮮語를 教授^하에는 恒常 國語와 聯絡을 保^하되 間或 國語로 談話^케 ㅎ이 可^함(보통학교규칙 제 11 조)</p>

	<p>注意^하야 互相連絡케 함을 要^함 讀文의 文章은 平易^하며 國語의 模範이 되 며 且 兒童의 心情을 快活純正케 ^하는 것을 要^하되 其材料는 修身, 歷史, 地理, 理科 及 其他 生活에 必須^한 事項으로 取^하야 趣味에 富^한 것으로 함이 可^함...(이하 생략)</p>	
<p>1938 (개정교육령 소학교)</p>	<p>1) 小學校ニ 於テハ 常ニ 左ノ 事項ニ 留意 シテ 兒童ヲ 教養スベシ 一 教育ニ 關スル 勅語 旨趣ニ 基キ 國民道 德ノ 涵養ニ カメ 國體ノ 本義ヲ 明微ニシ 兒 童ヲシテ 皇國臣民タルノ 自覺ヲ 振起シ 皇 運扶翼ノ 道ニ 徹セシメントヲ カムベシ… 七 國語ヲ 習得セシメ 其ノ 使用ヲ 正確ニ シ 應用ヲ 自在ナラシメテ 國語教育ノ 徹底 ヲ 期シ 以テ 皇國臣民タルノ 性格ヲ 涵養セ 닌코トヲ Камベシ 八 教授用語ハ 國語ヲ 用ウベシ(소학교규정 제16조) 2) 國語ハ 普通ノ 言語 日常須知ノ 文字 及 文章ヲ 知ラシ메 正確ニ 思想ヲ 表彰스 ルノ 能ヲ 養ヒ 兼ホテ 皇國臣民タルノ 自覺ヲ 固クシ 知德ヲ 啓發スルヲ 以テ 要旨トス 尋常小學校ニ 於テハ 初ハ 發音ヲ 正シ… (소학교규정 제18조)</p>	<p>朝鮮語ハ 日常簡易ノ 言語, 文字 ヲ 了解シ 正確ニ 思想ヲ 表彰스 ルノ 能ヲ 得シムルヲ 以テ 要旨 ト스..... 朝鮮語ヲ 授クルニハ 成 ル베ウ 日常ノ 生活ニ 關聯セシテ 常ニ 國語ト 聯絡ヲ 保チ 皇國臣 民タルノ 信念ヲ 涵養セン코トヲ カムルヲ 要스(소학교규정 제9 조) * 조선어과는 수의과임</p>
<p>1940 (통합교육령 국민학교)</p>	<p>1) 國民學校ノ 教科ハ 國民科, 理數科, 體鍊 科, 藝能科及職業科トス : 修身, 國語, 國 史及地理 2) 國民科ハ 我カ國ノ 道德, 言語, 歷史, 國 土 國勢 等ニ…</p>	<p>해당없음</p>

ㄴ. 고등보통학교(중학교)의 일본어, 조선어 교수 요지의 변화¹⁾

시대	일본어(국어)	조선어
<p>1911 (교육령 고등 보통학교)</p>	<p>1) 國語는 國民精神의 宿^한 바 오 또 知識 技能을 得케 함에 缺치 못^할 것인즉 何教 科目에 對^하야도 國語의 使用을 正確히 ^하고 其應用을 自在케 함을 期^하함이 可^함 (고등보통학교규칙 제10조) 2) 國語는 普通의 言語, 文章을 了解^하야 正 確 또 自由로 思想을 發表^하는 能을 得케 ^하며 兼^하야 智德의 啓發에 資^함을 要^함</p>	<p>朝鮮語及漢文은 普通의 言語, 文 章을 理會^하야 日常의 用務를 辨 別^하는 能을 得케 ^하며 兼^하야 智德 의 啓發에 資^함을 要^함로 함 朝鮮語及漢文은 德教에 資^함 文 章을 選^하야 此를 授^함이 可^함</p>

	<p>로 함 國語는 現代의 文章부터 漸次 近古의 國文에 及하여 其讀法, 解釋을 教하여 佳句, 格言, 韻文 等の 暗誦을 하게 하며... (고등보통학교 규칙 제13조)</p>	
<p>1922 (신교육령) 고등 보통학교</p>	<p>1) 國民된 性格을 涵養하며 國語에 熟達케 함은 어니 學科에서던지 恒常 此에 深히 留意함을 要함(고등보통학교 규칙 제1조 1항) 2) 國語及漢文은 普通의 言語 文章을 了解하며 正確 且 自由로 思想을 表彰하는 能力을 得케 하며 文學上의 趣味를 養하며 兼하여 智德啓發에 資함으로써 要旨로 함 國語及漢文은 現時의 國文을 主하여 講讀케 하며 進하여 近古의 國文에 及하고 또 平易한 漢文을 講讀케 하며 簡易하고 實用에 適當한 國文을 作케 하며 國語文法의 大要及習字를 教授함이 可함(고등보통학교규칙 제10조)</p>	<p>朝鮮語及漢文은 普通言語, 文章을 了解하며 正確 且 自由로 思想을 表彰하는 能力을 得케 하며 文學上의 趣味를 養하며 兼하여 智德의 啓發에 資함으로써 要旨로 함 朝鮮語及漢文은 普通朝鮮文 及 平易한 漢文을 講讀케 하며 實用簡易한 朝鮮文을 作케 하고 또 朝鮮語文法의 大要를 教授함이 可함(고등보통학교규칙 제11조)</p>
<p>1938 (개정교육령) 중학교</p>	<p>1) 國語ノ 使用ヲ 正確ニシ 且其ノ 應用ヲ 自在ナラシメテ 國語教育ノ 徹底ヲ 期シ以テ 皇國臣民タルノ 性格ヲ 涵養センコトヲ カムベシ(중학교규정 제11조 7항) 2) 國語漢文ハ 國語ノ理會及應用ノ能ヲ 得シメ 漢文ノ讀方及解釋ノ カヲ 養ヒ 我ガ 國民性ノ 特質ト 國民文化ノ由來トヲ 明ニテ 國民精神ノ涵養ニ 資スルヲ 以テ 要旨トス 國語ニ 於テ 國語ノ構造特質ヲ 知라シ메 國語ノ 正確ナル 理會ト 思想, 體驗ノ 明確ナル 表現... 國語ガ 國民性ノ 具現ニシテ... 國語漢文ハ 國語講讀, 漢文講讀, 作文, 文法及習字ヲ 課스ベシ... (중학교규정 제14조)</p>	<p>朝鮮語ハ 普通ノ 言語, 文章ヲ 了解シ 正確 且 自由ニ 思想ヲ 表彰スルノ 能ヲ 得シ메 兼ネテ 知德ノ 啓發... 講讀... 作り... 文法ノ 大要... * 조선어과는 수의과임</p>
<p>1943 (통합교육령)</p>	<p>中學校ニ 於テハ 教科及修鍊ヲ 課스ベシ 教科ハ 國民科, 理數科, 體操科, 藝能科, 實業科及 外國語トス(중학교규정 제2조) 國民科ハ ...</p>	<p>해당없음</p>

<자료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제강점기의 어문교과는 일본어(국어)를 중심으로 짜여 있다. 곧, 조선어과교육은 일본어과의 부속 정도로 다루어졌으며, ‘국어

(일본어)’에 ‘국민정산’이 담겨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조선어교육을 종속화시켰다. 그나마 1938년 이후로는 수의과로 바뀌다가 통합교육령 시대에는 학교교육에서 완전히 배제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조선어과에서의 독서 영역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이나 연구 성과를 찾기는 불가능하다. 다만 각 시대별 학교 규칙에 들어 있는 ‘조선어과 규정’을 살펴볼 때, 조선어과 수업에서도 ‘이해’, ‘표현’, ‘지덕 개발’을 목표로, 독법, 서법, 암송, 서취, 작문 등의 수업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영역은 보통학교와 고등보통학교의 수준에 따라 달리 이루어졌으며, 식민통치가 강화될수록 ‘국민정신(황국신민화)’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교수 요지’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매체인 교과서의 내용과 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시기 조선총독부에서 개발한 조선어과 교과서의 내용 및 편제의 일부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자료 11> 일제강점기 보통학교(소학교)의 조선어과 교과서 내용 변화¹⁶⁾

시대	목 차	비 고
1912 조선어급 한문독본	권1 : 한글 낱자, 문장 익히기, 한문 구절 등의 58과 구성. 권2 : (박봉배 본에서 목차만 제시하고 내용은 구하지 못함 필자도 이 책의 소장처 및 소장자를 확인한 바 없음)	복습, 연습 란을 두었음.

16) 조선어과 교과서 개발은 교육령의 변화에 따라 이루어졌다. 1911년 교육령에 근거하여 『보통학교 조선어급한문독본』, 『고등조선어급한문독본』이 개발되었으며, 1922년 교육령 시대에는 『보통학교 조선어독본』, 『보통학교 한문독본』, 『신편고등조선어급한문독본』, 『여자고등조선어독본』이 개발되었다. 1930년을 전후로 하여 『보통학교 조선어독본』, 『중등교육 조선어급한문독본』이 다시 개편되었으며, 1938년 이후로의 교과서 발행 실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초등조선어독본』류가 발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박봉배 교수 소장본(2003년 한국국어교육연구원 이름으로 영인본을 제작하였음)은 1912년 전후의 보통학교용, 고등보통학교용, 1923년 전후의 보통학교용, 고등보통학교용, 여자고등보통학교용, 1930년 전후의 중등교육용 조선어독본류를 영인한 것인데 이것이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교과서의 전부는 아니다. 왜냐 하면, 1912년 전후의 보통학교용 교과서는 4년제 심상과와 고등과가 나뉘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1938년 이후 수의과목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조선어과 교과서가 전혀 개발되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필자의 경우 판권이 누락되어 연대를 추정할 수는 없으나, 내용상 지원병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 1940년대의 『초등조선어독본』 권을 확보하였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교과서 연구는 시대별, 학제별, 학과별 조선어과와 일어과로 기초 자료의 수집과 정리가 다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판단된다.

	第一課 植木, 第二課 漢文, 第三課 鳥類, 第四課 漢文, 第五課 여러 가지꽃, 第六課 漢文(櫻花及芝蘭), 第七課 桃花, 第八課 漢文, 第九課 花遊에請邀…(모두 56과로 이루어져 있음)	
1923 조선어 독본	권1 : 한글 낱자 공부, 단어, 문장 익히기, 읽기 등 61과로 구성 권2 : 29과로 구성됨 一 寒食, 二 슈양버들, 三 봄노래, 四 친절한 女生徒(一), 五 친절한 女生徒(二), 六 개고리, 七 俚諺…	복습, 연습 등의 체제가 사라짐.
1930 조선어 독본	권1 : 한글 단어, 문장 익히기 등의 52과로 구성 권2 : 38과로 구성됨 一 봄, 二 四方, 三 섬과 반도, 四 산술공부, 五 단어, 六 단어, 七 표, 八 연습, 九 웃은 이야기, 十 우리 집, 十一 단어, 十二 표, 十三 단어, 十四 약물, 十五 입에 붙은 표주박, 十六 무지개, 十七 수수께끼…	낱자익히기 부분을 따로 두지 않음 연습 과를 따로 뒀음.
1940(추정) 초등조선 어독본	권1 : 미확보 권2 : 19과 제목없이 편제 一 : 우리 곡기는 흰 바탕에 붉은 빛으로 등글게 물들었습니다.(일장기 설명), 二 : 사방(四方) 설명 : 東京은 東쪽에 있습니다. 東京에는 天皇陛下 계옵서…; 三 : 그림과 단어, 四 : 음절 표, 五 : 인수의 일기…	내용상 일본 군국주의를 반영하고 있음

<지료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제강점기 조선어과 교과서는 <조선어급한문>을 묶어 편제하기도 하였고, <조선어>만을 따로 편제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 내용에서 1940년 이전까지는 일상 생활 및 조선인의 문화와 관련된 것이 많았으며, 과별 편제를 취하였다.¹⁷⁾ 또한 학습 방법과 관련하여 ‘복습’, ‘연습’에 해당하는 과를 두거나, 문제를 실음으로써 전시대에 보이지 않던 학습 활동이 나타났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일제강점기 조선어과의 독서교육은 강독과 이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교수-학습 방법은 일본어에 준하여 행하도록 하였다. 이 점에서 강독과 이해는 문자 해득력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조선어과의 주된 교육 활동은 독서교육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 교과교육이 일본어 중심이었으며, 교과서 개발이나 교수-학습법 개발도 일본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선어과의 독서교육 이론과 방법이 체계적으로 발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교수안 개발 과정을

17) 과별 편제는 전시기의 교과서까지 이어지며, 1954년 전후의 교과서에서 단원별 편제가 나타난다

통해서도 드러난다. 예를 들어 1920년대부터 조선교육회에서는 일본어과 지도를 위한 교수안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¹⁸⁾ 이에 비해 조선어과를 위한 교수안 개발 노력은 눈에 띄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조선어과 교육은 교육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등이 적절하게 개발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모습은 조선어 교육의 실태를 비판한 각종 논문이나 논설류에도 반영되어 있다.¹⁹⁾

이 점에서 심의린의 「보통학교 조선어독본 지도례」(『한글』 제2권 4호부터 제4권 제2호까지 연재, 1934~1936)는 조선어과 교육과 관련된 연구 성과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²⁰⁾ 이 ‘지도례’의 체제는 조선교육회의 ‘교수일안’과 유사하며 내용 체계도 유사하다. 이 두 자료를 검토할 때, 이 시기 일본어과의 경우는 ‘독법, 서법, 화법, 암송, 서취’ 등의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조선어과의 경우는 이와 같은 활동 영역이 분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학습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지도례’는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결과물이며, 이는 식민정부의 지원을 받는 조선교육회와는 달리, 조선어학회의 기관지인 『한글』을 통해서 발표되었다.

18) 조선교육회는 1923년(대정12년) 전후, 조선총독부 학무국 내에 조직된 단체로, 기관지 『文教の朝鮮』을 월간으로 발행하였다. 『普通學校 國語讀本教授日案』은 이 단체에서 보통학교의 일본어과 지도를 위한 지도안으로 개발한 책자이다. 이 책자의 구성은 ‘1. 교재 2. 교재관 3. 교재연구 4. 문단(절)의 연구, 5. 시간배당, 6. 준비, 7. 보충어, 8. 교법’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과마다 다양한 학습 자료 및 학습 방법을 시수별로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19) 일제강점기 신문, 잡지 등을 검토해 볼 때, 조선어과 교육과 관련된 비판적인 논문이나 논설을 찾는 것도 쉽지는 않다. 잡지의 경우 이병기, 「조선어와 작문」, 『학생』, 창간호(1929); 최현배, 「입학시험과 조선어」, 『학등』, 제5호(1934); 윤성용, 「조선어과 지도에 대하여」, 『학등』, 제9호(1934) 정도였으며, 조선어과를 축소하거나 수의과로 돌리는 데 대한 비판적인 논설을 게재한 신문의 사설이 몇 편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조선어과 교육 실태를 비판하기 어려웠던 까닭은 식민 시대의 언어교육 방침이 일본어 보급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20) 조선교육회의 「교수일안」과 심의린(1934~1936), 윤성용(1936)의 「지도례」는 오늘날의 ‘교사용 지도서’에 해당한다. 더욱이 「지도례」는 조선어학회의 『한글』에만 실려 있다는 점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어과 교육의 실태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진 바 없다. 이는 각 학년별 ‘교수일안’이 모두 발굴되지 않았으며, 「지도례」도 권1, 권2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글쓴이는 제한된 자료이나마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자료와 함께 조만간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2. 독서교육론의 전개

일제강점기의 독서이론은 근대계몽기와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양적인 면이나 질적인 면에서 크게 진전된 모습을 띠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10년대 식민상황에서 학문 연구의 풍토가 조성될 수 없었고 더욱이 계몽사상가들의 관심사가 ‘연설법과 같은 대중 계몽에 중점을 둔 시대상황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910년대의 독서에 대한 인식은 ‘문자 해독력을 바탕으로 학문과 지식 습득을 하는 것’이 ‘독서’라는 데 머물러 있다. 예를 들어 『청춘』(1914.12.28.)에 ‘외배’(외솔 최현배의 글일 가능성이 있음)라는 이름으로 실린 「독서를 권함」에서는 독서의 가치를 ‘정신적 식량’에 비유하고 있다.

<자료 12> 외배, 「讀書를 勸함」, 『청춘』 제 3호(1914.12.28.).

書籍은 思想과 智識을 간직한 倉庫이니 글이 생긴 以來로 數千年 聖人賢哲의
캐어 놓은 金玉 가튼 眞理와 敎訓과 뜻가튼 情의 美를...

이와 같은 인식 아래 독서와 관련된 심층적인 논의는 크게 이루어진 바 없다. 이러한 한계는 식민지라는 시대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문자해독력’이 ‘지식 보급의 중요한 수단’이 되며, 이를 바탕으로 민중을 계몽해야 한다는 사상은 1925년 이후의 계몽운동의 중심 사상이었다. 다음은 이러한 경향을 대변하는 자료이다.

<자료 13> 序文(本誌第三卷第三號에서再載),²¹⁾ 『朝鮮農民』(朝鮮農民社, 1928.

4).

우리 朝鮮農民社는 農民讀本을發行한다. 그는朝鮮사람에 文盲을退治하는것이 目的이다. ...우리朝鮮에 이제까지 新朝鮮建設의必要를느끼고 말하는동무는잇섯스나

21) 조선농민사의 『농민독본』은 발굴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다만 잡지 『조선농민』에 일부 내용이 연재되어 있으며, 책의 발간도 이 잡지에서 서문을 소개하고, 발간 취지를 소개하였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에 대해서는 허재영 「근대계몽기 이후 문맹퇴치 및 계몽운동의 흐름」, 『국어교육연구』, 제13집(2004)를 참고

그基礎工事に손대인동무는업섯고 또설혹基礎工事を始作하라고하얏서도 연장
과木수가업섯다. 이것을要約하여말하면 첫째 아직까지勞農群衆의文盲退治를
專門으로하는教育機關이 이루어지지못한것과 둘째 아직까지勞農群衆의文盲
退治에適切한教材가업섯고 또그다음 맞하볼教育的的專門家가업섯다는 것이다.
그러나우리는이일을남이하여줄것이라고 믿어서는안된다. 우리는勞農群衆의
힘으로써教養機關을만들어야하고 우리勞農의일터에서그教材를캐어내고우리
勞農群衆그속에서實際教育家가나와야한다.

그래서 우리는勞農의힘으로일우어진朝鮮農民社가 그使命을다하는機關이되어
야할것을깨다렸고 文盲退治의 必要를쉬지안코부르지졌다 그結果全朝鮮勞農
群衆의일터에는農民夜學 勞動夜學等의教育機關이우리들同志의손으로雨後竹
筍갓치이러서먼서있다.

이에우리는勞農群衆의일터에서教材를採取하야(農民讀本)이라는成人教育文盲
退治用의教科書를發行하게되였다...(중략)...

그러나저들은教授方法에熟達치못한것이한유감이다...(이하 생략)

<자료 1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시기의 중요 과제로는 ‘문맹퇴치가 있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교육기관이나 노동야학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교과서
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 과정에서 교수 내용과 방법과 관련된 논의가 이
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좀더 상세히 언급되어 있다

<자료 14> 농민독본의 성격

(一)

우리는이讀本の첫권에음음合字하는方法을가르치기에힘썼다그는讀書와맞綴
字의秘方을發見케함에있다.

그리고新聞雜誌와갓흔것을能히볼수있도록하라면음音法에經路를찾는것보다
讀書의機械的方法을發見하야할 것이다.

讀書의機械的方法에는言文音調의有助가不少함으로讀本中卷에는古談笑話노
래로써編纂하였다.

그다음文盲退治는同時에治政上智識을養하야된다. 或者는蒙學즉簡易한것을
배호는農民이나 勞働者에게猝地에政治的講述을하는것은教育上原則에違反되
는것이라한다.

그러나 우리는 **讀하고書**하는 것을 가르치는 동시에 政治的觀念을 注入할 必要를 가졌다. 비록 「우리는 압박을 싫어한다」라는 문제에 反對로 「우리는 압박을 조하한다」라 하더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學生들끼리 서로 討論하는 것은 가장 深甚한 意味가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 우리는 讀本에 가담가담 時局問題에 關한 標語를 種託하여 讀法書法 및 政治教育의 初步에 드러가는 一舉兩得의 功效를 어울수있도록 하였다. 그다음 우리는 讀本 下卷에 科學的智識을 涵養하기에 힘썼다 …(중략)… 이것이 우리 讀本에서 勞農羣衆으로 하여금 社會上實生活의 利害得失을 理解케 하라는 것이다.

(二) 以上諸問題를 解決하는 各種의 材料는 個人交際上에서 **新聞雜誌에서書籍에서採取**할수있는 것이다.

讀本이 文盲退治의 目的을 達하라면 다 讀本에 만限할 것이 아니라 各種農民을 爲한 出版物을 讀케할 必要가 있음으로 生徒에게 그 進路를 指導하되 新聞과 雜誌와 다른 出版物을 읽도록 勸告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그리하여 前日에 學習한 文章을 活用하는 길을 열게 하여 文盲의 害를 滅絶케 하여야 될 것이다. 前進치 못하는 者는 退步하는 것이다 科學의 領域은 界限이 없나니 勝利의 足跡은 到處에 及할 것이다.

<자료 14>에서는 독서를 ‘독’과 ‘서’로 나누어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는 ‘독서’가 단순히 읽고 이해하는 차원에 그치지 않음을 의미하는데, 아쉽게도 ‘독’과 ‘서’가 어떻게 구분되며, 어떤 관련을 맺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그러나 이 시기에 이르러 ‘독서의 기계적 방법’이 논의되면서 ‘독서법’과 관련된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한 점은 의미 있는 일로 보인다. 독서의 효용과 독서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은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어교육의 발전, 또는 독서교육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로 생각된다. 이러한 입장에서 독서에 대한 좀더 과학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 예로 1933년 창간된 『학등』에서는 여러 학자들의 독서에 대한 견해를 실고 있다. 그 가운데 오천석은 심리학과 관련지어 독서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료 15> 오천석, 「讀書을 어떻게 할가: 心理學은 이렇게 가르친다」, 『학등』, 창간호(1933).

現代는 讀書時代

現代는 讀書時代다. 讀書은 現代人의 生活에 있어 극히 重要한 役割을 하고 있다. 실로 讀書 없이는 生活을 營할 수 없을만치 現代人에게 讀書가 絕對로 必要하게 되었다. 學生은 教科書를, 參考書를, 노트를 읽어야 하며, 社會人은 新聞을, 雜誌를, 書籍을, 書簡을, 揭示를, 廣告를 보아야 한다. (중략) ... 그러나 今의 事情은 讀書을 一大問題視하게 하였다. 讀書가 우리 生活과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느니만치, 讀書의 必要와 範圍가 커졌으니마치 ‘讀書을 어떻게 하여야 할가?’ ‘가장 有效하고 가장 經濟的인 讀書法이 무엇인가?’ 하는 質問을 自然 發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以上 疑問에 對하여 心理學의 秘苑 속에서 그 解決의 暗示를 얻어보기로 한다.

心理學이 보는 讀書

常人은 讀書을 定義하여 文字에서 思想을 取得하는 過程 혹은 手段이라 한다. 嚴正한 意味에 있어 이것은 그릇된 생각이다. 思想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刺戟은 밖에서 올 수 있으나 생각은 반드시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讀書을 정의하여 “文字로 因하여 刺戟을 받은 思想, 感情, 態度 등과 같은 習慣的, 反應運動의 連鎖”라 한다. 쉽게 말하면 文字라고 하는 것은 단지 過去에 學習하여 얻어두었던 反動作用을 일으키는 刺戟에 不過한 것이다.

우리가 책에 써온 글자를 볼 때부터 입으로 그것을 소리 내어 읽을 때까지는 **六個의 階段**이 있으니,

- 一, 視覺的 印象이 網膜에 비친다
- 二, 神經衝動이 網膜으로부터 頭腦의 視覺域으로 들어간다.
- 三, 視覺域 近方과의 連絡으로 이 神經衝動의 意味를 알게 된다.
- 四, 衝動이 視覺域에서 言語域으로 通過한다.
- 五, 神經衝動이 言語域으로부터 혀, 입술, 聲帶 등에 있는 筋力으로 간다
- 六, 言語機關의 動作으로 소리를 낸다

以上과 같은 六階段을 밟은 뒤에야 우리는 소위 讀書을 完了하였다 할 수 있을 것이다. ...

經濟的 能率的 讀書은 어떻게?

- 一, 첫째 **讀書의 速度를 빠르게** 하도록 努力할 것

世上에 나오는 書冊을 다 읽을 수는 到底히 없다고 하더라도, 可及的으로 넓히 읽을 必要的 切實히 느끼는 바다. 이렇게 하는 대는 讀書의 速度를 빠르게 하는 것 밖에 다른 方途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讀書의 能率을 增加할 수 있을까?

1. 목소리를 내어 글 읽는 習慣을 버리고 속으로 읽도록 努力할 것...
2. 목소리는 내지 않더라도 입술을 움직이는 것도 不可...
3. 直接으로 讀書의 速度로 增加시키도록 努力할 것...
4. 讀書物의 性質을 알아 速度를 增感할 것...

二, 둘째, 理解에 있어 集中된 注意力을 가지고 意味를 捕捉하도록 努力할 것 그 方法에 있어서는

1. 讀書의 速度를 增加시킬 것...
2. 主要思想을 回想하기 위하여 가끔 讀書를 停止할 것...
3. 主要한 思想은 主要치 않은 思想에서 區別하여 主要한 部分에만 注意를 集中시키는 習慣을 기를것...

<자료 15>는 독서의 의의, 독서의 과정, 능률적인 독서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서의 의의’에서는 ‘독서가 생활인의 필수 행위임을 강조하였고, ‘독서 과정’에서는 ‘읽기가 이루어지는 6단계의 과정’을 설명하였다. 또한 ‘독서의 능률’에서는 독서의 속도를 높이고, 주의를 집중하여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독서의 과정, 능률, 집중력, 의미 파악 등의 문제는 비록 구체적인 독서 지도 사례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선 시대에 비하여 독서 행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관점의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학등』 창간호의 특집은 독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 특집에 실린 주요 내용을 표로 만들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 16> 『학등』 창간호(1933)의 독서 관련 논설

필자	제목	본문 내용	특징
백낙준	讀書하라	讀書의 目的이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로 智識을 얻기 爲하야 讀書를 하는 것이 主要한 目的일 것이다. ...讀書는 精神의 食糧이니 우리의 精神의 健旺을 爲하야 讀書에 用力할 것이다. ...글을 읽는 것이 知識을 얻으려하고 精神을 向上시킨	독서의 목적을 세분화

		대만 있지 아니하고 娛樂으로 읽을 수 있다 …글을 읽을 때 마다 어떠한 目的을 가지고 읽어야 한다. …讀書는 그 自體가 目的이 아니오 〇떠한 目的 到達의 方式이다. 文學은 生命 그 自體가 아니며 讀書는 더욱이 思惟 그 自體도 아니다. 思惟를 얻기 爲하여 글을 읽을 것이다.	
김윤경	글을 읽자	…讀書는 理想을 高尚하게 하여 줍니다. 讀書는 無窮無盡한 趣味를 실어 옵니다. … 讀書는 發明의 源泉입니다. 讀書는 人格 修養의 土臺입니다. 讀書는 東西古今의 偉人傑士를 쉽게 卽刻으로 紹介시키어 줍니다.	독서의 의의와 가치를 세분화
오천석	독서를…	<자료 15> 참조	과정, 방법
주요한	娛樂으로서의 독서	…讀書가 娛樂化하는 傾向은 물론 近代에 와서 增長된다. 찌날리슴의 發達이 여러 가지 要素에 依한 것이나 이 娛樂의 要素에 依함은 比較的 클 것이다. 그러나 같은 娛樂이라 하여도 讀書는 比較的 高級에 屬한 娛樂이라 할 것이다…	직업적 독서와 오락으로서의 독서를 구분
유영기	돈이냐? 책이냐?	독서에 대한 일화 소개	이야기

<자료 16>의 글 속에는 독서의 의의가 비교적 분석적으로 소개되어 있다. 독서의 가치를 지식 습득에서만 의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정신 수양이나 오락 기능으로서도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 세분화는 ‘취미로서의 독서’를 강조함으로써 ‘독서는 고급 취미’라는 인식을 만들어낸 한계²²⁾도 있으나, 독서의 의의와 효용을 세분화함으로써, 독서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셈이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일제강점기의 조선어과 독서교육은 교육 이념이나 이론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한계를 안고 있었다. 특히 ‘교수 요지’는 식민시대의 어문교육정책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조선어과의 위축을 가져왔고 그 결과 공교육상의 독서교육도 이론적인 차원과 실제적인 차원에서 모두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일본어과를 모방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교사용지도서>에 해당하는 ‘조선어과 지도례’가 모색되었고, 그 속에서 각 과별 독서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22) 독서가 취미생활일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은 학문적으로 규명된 바는 없지만, 많은 논란거리를 안고 있다. 왜냐 하면, 오늘날 독서교육론은 독서의 가치, 효용, 방법 등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독서가 단지 ‘여가를 위한 고급 취미’로 인식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오락으로서의 독서’에 대한 인식 변화는 ‘독서야말로 고급 취미’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독서 인식의 한계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써, 독서교육 방법론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졌다는 점 문자보급 및 계몽 차원에서 독법 문제를 고민하였다는 점, 오천석(1933) 등에 의해 독서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전시대에 비해 좀더 과학적인 독서교육을 지향하고자 하였다는 점 등은 독서교육의 역사에서 발전적인 모습으로 기술될 수 있을 것이다.

IV. 건국기의 독서교육

1. 국어교과에서의 독서교육

건국기의 국어교과교육은 미군정기에 만들어진 ‘교수요목’(1946.9.1.)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교수요목은 ‘교수 요지, 교수 방침, 교수 사항, 교수의 주의’로 이루어져 있다. 당시의 각급학교별 교수 요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료 17> 교수 요목의 주요 내용

항목	내용
요지	국어는 일상 생활에 필요한 말과 글을 익혀, 바른 말과 맞는 글을 잘 깨쳐 알게 하고, 또 저의 뜻하는 바를 바르고, 똑똑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힘을 길러 주고 아울러, 지혜와 도덕을 북돋우어, 국민된 도리와 책임을 깨닫게 하며, 우리 국민성의 유다른 바탕과 국문화의 오래 쌓아 온 길을 밝히어, 국민 정신을 단뼉 길러 내기에 뜻을 둔다.
국민 학교 방침	(㉠) 국어와 국문의 자여짐과 그 특질을 알게 하여 바른 곱을 찾게 하며, 저의 일어나는 생각과 몸소 겪은 바를 밝고, 똑똑하게 자유롭게 나타낼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다. (㉡) 국어와 국민성의 관계를 잘 어울리게 들어내어, 국어를 잘 배움으로 우리 국민의 품격을 높일 수 있다는 깨달음을 일으키게 할 것이며, 따라서 우리 국어를 아끼고 높이며, 우리 국어의 실력을 잘 닦아, 더욱 아름답고 더욱 바르게 만들겠다는 마음을 굳게 가지도록 하여 줄 것이다. (㉢) 연사적으로 우리 국문화의 이어 옴과 닦아 옴과 살아 놓음을 잘 알리어, 여기에서 기쁨과 고마움을 깨닫게 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더 닦으며 또 새로 뚫어 내어, 우리 국문화를 한층 더 빛나게 하고, 또 나아가 이를 퍼쳐서 세계 문화에 큰 바침이 되게 하겠다는 굳은 마음을 가지도록 가르칠 것이다.
사항	국어는 읽기와 말하기와 듣기와 짓기와 쓰기로 나누어 가르친다. 1. 읽기 : 바른 말을 맞는 글로 적어 이를 읽히며 이를 풀게 하되 , 글은 반드시

	<p>깨끗하고 시원스럽고 힘차고 올바른 것을 가릴 것이며, 글이 가진 뜻은 국가 관념과 국민 도덕과 지혜를 넓힐 것과 인격을 다듬을 것과 정서를 아름답게 기를 것을 골라서 가르쳐, 민주국가 국민에 맞는 바탕을 길러 내기에 힘쓸 것이다.</p> <p>2. 말하기 : 아이들에게 말을 시켜 ...</p> <p>3. 듣기 : 남의 말을 들을 때에 차근차근히 정성 있게...</p> <p>4. 짓기 : 제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밖에서 겪은 일을 글로 적어...</p> <p>5. 쓰기 : 연필이나 철필을 가지고 국문 글씨를 쓰게 하되...</p>
주 의	<p>다른 모든 학과목을 가르칠 때에도 늘 말과 글을 바로 가르치기에 뜻을 두며, 글씨 쓰기도 바르고 빠르게 잘 쓰도록 주의할 것이다.</p> <p>이 위와 같이, 말과 글을 가르치되, 어느 때에나 우리의 국민성에 비추어, 우리 문화로 나타난 우리의 특징을 알리고, 따라서 우리가 힘쓸 것을 찾게 하여, 우리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말고, 나라를 잘 다스려 나아갈 미쁜 마음과 굳센 힘을 기르도록 힘쓸 것이다.</p>
요 지	<p>국어를 잘 알고 잘 쓰게 하며, 우리의 문화를 이어 확충 창조하게 하고, 겸하여 지덕(智德)을 열어 건전한 국민정신을 기르기로 요지를 잡음</p>
방 침	<p>(가) 국어의 뉘뉘이름 밝히며, 그 국민다운 사상 감동의 표현 방법을 가르치어 국어의 올바른 이해와, 사상, 체험의 명확한 발표를 익히고, 국어 애증의 생각을 기를.</p> <p>(나) 국어 국문의 전통과 그 표현을 이해하게 하고, 국어 국문의 사적 史的 발달을 구명하여, 종래의 사상 문화의 연원과 발달을 자세히 알려 국민정신을 기르고, 우리 문화를 창조 확충하게 하는 신념을 배양함.</p> <p>(다) 국어 국문을 통하여 덕육, 지육, 체육 등의 정신과 식견을 길러 건전한 중견 국민의 사명을 스스로 깨닫게 함.</p>
중학 교 사 항	<p>교수 사항은 아래와 같음.</p> <p>읽기, 말하기, 짓기, 쓰기, 문법, 국문학사</p> <p>1. 읽기 : 국어의 익힘, 풀기, 감상, 비평 받아쓰기 등을 시켜 국가의식을 높이고, 도의와 식견을 밝히고, 실천 근로 문예 등을 즐기고 심신을 건전하게 하여, 끈직한 국민의 자질을 기를</p> <p>2. 말하기 : 올바른 국어로써 사상 체험을 똑똑히 발표하고...</p> <p>3. 짓기 : 현대어를 위주하여, 감정 의사를 익달하게 들어내어...</p> <p>4. 쓰기 : 정확하고, 민속하고, 깨끗하고도 아름답게 쓰도록 지도함.</p> <p>5. 문법 : 국어의 소리, 글자, 어법, 표기 등의 대요를 가르쳐...</p> <p>6. 국문학사 : 국문학의 사적 발달의 대요를 가르쳐...</p>
주 의	<p>읽기, 말하기, 문법, 짓기, 쓰기는 항상 그 관계와 연락을 긴밀히 하여 지도함. 읽기는 읽는 법을 위주하여 반복수련하게 하며, 그 문리를 정통하도록 함. 익히기에서는 발음을 정확하게 하여, 그 귀조(句調)와 문제를 분명히 구별하고, 그 글 뜻을 이해하며, 어귀, 글월을 명확히 이해하게 하며, 특히 국민정신을 기를에 유의함. 가끔 받아쓰기도 시켜 읽기의 교수 효과를 더욱 정확하게 함.</p> <p>말하기는 ...문법은...짓기는 ...</p> <p>말하기와 쓰기는 따로 시간을 벌려 놓지는 아니 하였으니, 읽기와 짓기 시간에 적당한 기회에, 이를 지도하기로 함.</p> <p>초급과 고급의 선택과목은 국어의 보충교재를 교수하기로 하되, 한문도 교수할 수 있음.</p>

<자료 17>의 교수요목에서 ‘읽기는 국어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수 사항에 포함되어 있다. 그 가운데 ‘국민학교’의 경우는 ‘읽고 풀이하는 능력’에 목표를 두고, 이를 위해 ‘체제를 가려 읽을 수 있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민주국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르는 데 목표를 두었다. ‘중학교’의 경우는 좀더 구체화된 목표를 기술하고 있는데, ‘익힘, 풀기, 감상, 비평, 받아쓰기’가 읽기 활동의 주요 영역이며, ‘반복 수련하여 문리에 정통하도록 하는 것’을 주의할 사항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교수요목의 진술 내용은 과도기적인 시대 상황에서 임시방편으로 제시된 것이지만, 당시의 국어문제나 국어과교육 문제²³⁾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틀 속에서 미군정기와 정부수립기의 국어과교육이 이루어졌으나, 실제 교과 운영의 모습은 위의 방침이 적절하게 수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중학교 학제의 변화이다. 미군정기와 정부수립기의 중학교 학제는 6년제였으나, 1950년 4월 학제 변경으로 초중고 6-3-3 제도를 갖추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51년부터는 고등학교가 운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기가 전시여자 학사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⁴⁾

따라서 이 시기의 국어과에서의 독서교육이 이론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는 교과서의 편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광복 후 처음으로 만들어진 군정청문교부의 『중등국어교본』(조선어학회 지음, 군정청 문교부, 1946)의 체제는 읽기 체재와 익힘 문제가 함께 들어 있다. 이는 읽

23) 이 시기의 국어문제에 대해서는 허만길, 『한국 현대 국어정책 연구』(국학자료원 1994)를 참고할 수 있으며, 국어과교육 문제는 박봉배, 앞의 책(1987); 박봉배, 『국어교육전사(중, 하)』(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7) 등을 참고할 수 있다. 국어문제로는 국어회복과 국어보급이 주요 과제였으며, 국어과교육 문제는 각급학교 개교와 함께, 교재, 교사, 교육시설 등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 국어과교육과 관련하여 교과서 개발이나, 교사 양성제도 등에 대해서는 또 다른 고찰을 요한다. 참고로 교과서 개발 양상은 이종국, 『한국의 교과서 출판 변천 연구』(일진사, 2002)의 연구가 있으며, 허재영, 「과도기의 교과서」, 『교육한글』 16·17 권 한글학회 2004)에서도 이 문제를 다룬 바 있다.

24) 전시기의 교과서를 살펴보면, 중등의 경우 1950년 후반, 1951년 전후반, 1952년 전후반의 교과서가 임시방편으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951년 전반의 중등국어 1-1과 후반의 중등국어 1-2의 내용이 겹쳐 있으며, 판권은 문교부 소유이나 인쇄소는 각각 달리 표기된다. 고등국어의 경우는 1952년판부터 발견된다. 현재 확인된 전시하의 고등국어는 1-I, 1-II, 2-I, 2-II, 고등국어II(2-I, 2-II를 합친 것)가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전시하에서도 1950년 개편된 학제에 따라 고등학교가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 활동의 구체적인 모습을 알려주는 셈인데, 그 이후에 제작된 교과서류는 읽기 체재만 수록한 것이 많다. 이러한 체제 변화는 당시의 경제적 요인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국어과교육의 혼란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대적 한계 속에서도, 이 시기의 독서교육은 ‘읽기 체재의 선별’, ‘읽기 활동의 구체화’가 일제강점기에 비해 좀더 세분화되었다는 점에서 발전된 모습을 띠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발전은 당시의 독서교육론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독서교육 이론의 발달

건국기의 독서교육론은 국어과교육정책론²⁵⁾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그 가운데 국어교과의 교수법과 관련된 논의는 이 시기 독서교육의 연구 경향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호성은 『민주주의 국어교수법 강화』(문교사, 1947)라는 제목에 맞게 국어교수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은 제1편 서론(序論), 제2편 원론(原論), 제3편 각론(各論), 제4편 여론(餘論)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론은 다시 ‘철법 지도’, ‘문장 지도’, ‘문법 지도’, ‘화법과 청법 지도’, ‘작문 지도’, ‘서법 지도’, ‘독서법 지도’로 이루어져 있다. 그 가운데 ‘독서법 지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료 18> 이호성(1947)의 ‘讀書法의 指導’

一, 讀書와 그 目的

글을 읽힘에는 왜 읽히는 것인지, 반드시 그 目的이 있어야 한다...(중략) ...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自然的이고 合理的인가. 첫째 指導者는 읽히기 前에
먼저 目的을 確立하고, 그 目的을 明示하고서 읽히어야 한다. ... 둘째로는 그
目的에 따라 읽는 態度를 確立하고, 거기 따라서 그 目的에 適當한 읽는 法을

25) 이에 대해서는 허재영, 「국어교육정책연구사」(국어교육연구학회 주관 『국어교육100년사』 특집으로 기획된 논문이며, 아직 미간행 상태임, 2005)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다루었으며, 당시의 논저 목록도 소개하였다. 당시의 국어교육정책은 국어회복에 따른 국어교육의 당면 문제, 한자문제, 맞춤법 문제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국어교육의 차원에서 국어학습법, 낭독법과 같은 교수법의 문제도 제기된 바 있다.

採擇하도록 指導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

二, 音讀과 默讀

그러면 音讀과 默讀 두 가지 中에서 어느 것을 本體로 할 것인가. 이에 대하여 말하려 한다. 위에 考察한 바도 있거니와 이것을 決定함에는 먼저 어떠한 경우에 音讀을 必要로 하며, 그 長點은 무엇이고 短點은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音讀은 첫째 남에게 들릴 때에 必要한 것이요, 둘째로는 發音이 마음과 같이 되나 안되나, 다시 말하면 들리지 않고 잘 읽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알려고 할 때에 必要한 것이다. … (음독의 장단점은 중략… 以上으로써 音讀의 必要한 경우와 그 長點과 短點이 밝히어졌을 줄 믿는다. 그러나 좀더 明白히 하기 위하여 默讀은 어느 경우에 必要하며, 또 그 長點과 短點은 무엇인가를 말하려 한다. …

美國에서는 近來 讀書心理學이라고 하는 한 學問까지 생기어 讀書에 대한 것을 科學的으로 研究하고 있으며, 그 研究한 結果가 벌써 初等教育에까지 實現되어, 速히 讀破하는 힘을 練磨한다고 한다. 그 結果 이러한 教育을 받은 青年에게는 到底히 따라갈 수 없다고 한다. 文化의 向上 發達을 따라 모든 出版物이 洪水같이 나오며, 이것을 될 수 있는대로 많이 보아 知識을 넓히지 않으면 남에게 남의 나라에게 뒤떨어질 것은 明若觀火한 일이다. 그렇다고 이 바쁜 時代에 책 보느라고 歲月을 보내서는 아니 될 것도 환한 일이다. 이것을 科學的으로 打開하기 爲하여 생긴 學問이 곧 讀書心理學이라는 것이다. …(독서심리학의 내용 소개는 중략)…

<자료 18>에서 주목되는 것은 ‘독서지도’에서 ① 독서의 목적을 확인하고 명시할 것, ② 독서 목적에 따라 읽는 태도를 확립하고, 그에 합당한 방법을 채택하여 지도할 것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그 과정에서 독서교육의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나 그 목표가 갖는 의미를 밝히지는 못했지만, 독서심리학의 도입을 통한, 독서교육의 과학화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또한 독서법으로 ‘음독’과 ‘낭독’을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수법의 소개는 독서지도방법의 초기 모습을 띠고 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경험으로서의 독서교육이자, 생활로서의 독서교육을 의미하는 셈이다. 더욱이 이러한 독서교육론이 미국의 독서교육론의 영향을 받았음을 뚜렷이 하고 있다.

이처럼 건국기의 독서교육론은 시대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어교육의 넓은 틀 속에서 구체적인 영역과 지도 방법을 바탕으로 비교적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이와 같은 관심사는 1955년 교육과정 실행 이후의 구체적인 독서지도법과 관련된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건국기의 독서교육은 교육과정과 이론의 상호작용성이 앞선 시대에 비해 높아진 시대로 평가된다. 이는 1955년의 제1차 교육과정에서 독서 영역이 경험 요소와 기술적 차원으로 진술된 점을 고려할 때, 건국기의 독서교육론이 바탕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건국기까지의 독서교육론은 교사 중심의 독서교육이자, 언어 경험 요소를 바탕으로 기술적인 지도를 행하도록 하겠다는 점에서 제1차 교육과정의 독서 영역의 내용 체계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이 글은 근대계몽기 이후 건국기까지의 독서교육의 실제와 이론적 발달 과정을 기술하는 데 목표를 둔 글이다. 전근대의 독서교육과는 달리 근대 이후의 독서교육은 ‘지식 습득’, ‘사고 획득’, ‘의미 구상’이라는 차원에서 급속히 발전하였으며 그 결과 ‘국어과교육학’의 한 영역으로 ‘독서교육학’의 정립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독서교육의 역사를 정밀하게 살피고, 그 발전 과정과 한계를 되짚어 보는 일은 의미있는 일로 보인다. 왜냐 하면, 독서교육론이 외부에서 수입된 학문이 아니라 근대계몽기의 서구 학문의 도입과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바탕으로 점차 성장하여 가는 과정을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이 글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근대계몽기의 독서교육 : 근대계몽기 독서의 중요성은 ‘지식습득’이라는 차원에서 강조되었으며, 학교교육에서는 ‘독서, 작문, 습자’ 교과가 존재하듯 독서교육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국어과교육은 영역이 분화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교육 목표나 교수법과 관련된 과학적인

접근이 어려웠다. 이러한 입장에서 1906년 보통학교령과 고등학교령의 발표(發布)는 ‘국어’라는 교과와 성립을 가져왔고, 그 교과 영역에서 ‘독법 철법 서법’을 뒀으므로, ‘독서교육’의 초기 모습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당시의 교육이 통감시대의 학정 잠식이라는 한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였지만, 독서교육의 이론화가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로 생각된다. 더욱이 이 시기 이춘세의 독서이론은 독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한 논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학부 편찬, 『보통교육학』(학부, 1910)은 교수법을 교육활동에 반영하도록 한 정책적 저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일제강점기: 이 시기 독서교육은 식민통치기의 일본어 보급 정책에 밀려 구체적으로 발전된 모습을 찾기 어렵다. 특히 학교교육에서 조선어과 교육은 일어과의 부속 정도로 취급되었으며, 그나마 식민통치가 길어지면서 점차 위축, 폐지되었다. 이 점에서 학교교육에서의 독서교육의 발전된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심의린의 「조선어과 지도례」, 『한글』(조선어학회, 1934~1936)이 발표되었으며, 문맹퇴치의 차원에서 독서교육의 중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오천석, 「독서를 어떻게 할가」, 『학등』, 창간호(1933) 등의 논의에서와 같이 심리학에 토대를 둔 독서이론이 소개되기도 하였다.

(3) 건국기의 독서교육: 이 시기의 국어과교육은 과도기적 성격을 띠며, ‘교수요목’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졌다. 특히 국어회복과 국어교육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진 시대이기 때문에 국어과교육에서의 ‘독서지도법’에 대한 논의도 점차 활기를 띠어갔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호성 『민주주의 국어교수법 강화』(문교사, 1947)의 논의는 독서심리학에 바탕을 둔 독서지도론으로, 교육과정 실행 이후의 발전된 독서이론을 기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할 때, 근대계몽기로부터 건국기까지의 독서교육은 교육 목적과 목표를 반영한 ‘교수(교과) 요자’, 이를 구현한 교과서 요지를 구성할 때 작용하는 이론 등의 상호작용성이 약한 시대로 평가되며, 그 주된 요인은 독서교육 자체보다는 각 시대가 놓여 있는 상황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달리 말해, 근대계몽기는 학제 도입이 이루어진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과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일제강점기는 일어보급이 우선적인 목표였고, 건국기의 경우 연구 성과를 충분히 축적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교수요목이 제정되

었다는 점 등이 한계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근대계몽기로부터 시작된 독서교육론은 독서의 목적, 독서의 심리, 독서 방법 등의 차원에서 논의 영역을 넓혀 갔으며, 그러한 성과는 경험적·기술적 차원의 독서교육론을 바탕으로 한 제 차 교육과정의 독서 영역을 구현하는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

참고문헌

- 강윤희, 『개화기의 교과용 도서』. 서울: 교육출판사, 1973.
- 김규창, 『조선어과 시말과 일어교육의 역사적 배경』. 서울: 김규창교수논문간행위원회, 1985.
- 박봉배, 『국어교육전사(상)』.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7.
- 박봉배, 『국어교육전사(중, 하)』.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7.
- 이광호, 「개화기의 어문정책」. 『동양학』 제32집, 단국대학교동양학연구소, 2002, 232~249쪽.
- 이종국, 『한국의 교과서: 근대교과용도서의 성립과 발전』.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1.
- 이종국, 『한국의 교과서 출판 변천 연구』. 서울: 일진사, 2002.
- 이호성, 『민주주의 국어교수법 강화』. 서울: 문교사, 1946.
- 천경록·이재승, 『입기 교육의 이해』. 서울: 우리교육, 144~151쪽.
- 學部編輯局, 『普通教育學』學部(구한국시대), 1910. 3~45쪽.
- 한국학문헌연구소, 『한국 개화기교과총서』. 서울: 아세아문화사, 1977.
- 한국국어교육연구원, 『침략기의 교과서』. 서울: 한국국어교육연구원, 2003.
- 허만길, 『한국 현대 국어정책 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1994, 17~51쪽.
- 허재영, 「일제강점기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조선어교육」. 『한말연구』 제4집, 한말연구학회, 2004, 279~315쪽.
- 허재영, 「일제강점기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일본어 보급정책 연구」. 『일제강점기 일본어 보급 정책 자료』. 서울: 역락, 2004, 7~54쪽.
- 허재영, 「근대계몽기 이후 문맹퇴치 및 계몽운동의 흐름」. 『국어교육연구』 제13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4, 578~596쪽.
- 허재영, 「과도기의 교과서」. 『교육한글』 제16·17집, 한글학회, 2004, 59~90쪽.
- 허재영, 「근대계몽기 이후 국어교과의 성립 과정 연구」. 『중등교육연구』 제3집 제 2호, 경북대학교 중등교육연구소, 2005, 127~164쪽.
- 허재영, 「국어교육정책연구사」. 『국어교육백년사』(한국어교육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논문집으로 발

행될 예정임). 2005.

홍웅선, 「한글첫걸음 시대, 교과서, 교육과정」. 『국어교육』(현대교육학총서). 서울: 현대교육학총서 출판사, 1963, 2~25 쪽

(근대계몽기, 일제강점기, 건국기의 신문, 잡지 등의 논문은 본문에 표시하였으며 참고문헌에는 따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DB는 국어교육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 투고일 : 2005. 4. 20.

● 심사완료일 : 2005. 8. 26.

● 주제어(keyword) : 독서교육(reading education), 교육과정(curriculum), 교과서(textbook), 상호작용성(mutuality)